

코레일 “광주송정역 KTX 확대, 단시간 내 어렵다”

광주시·정치권, 불편 해소 촉구 ‘오송~평택 복복선화’ 없인 불가능 955석 KTX1 2대 연결 운행도 안돼 “해소방안 찾을 때까지 지속 건의”

광주 송정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광주 시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고속 열차(KTX)의 증차·좌석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KTX 이용 불편 해소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는 2027년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평택~오송 복복선화(4차선로화)’ 사업이 완료돼야 서울~광주 KTX 증차·좌석 확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년 호남 KTX 개통 당시 1만6000여명이었던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2019년에는 2만 5000명까지 증가했고, 올해부터는 코로나 이전의 증가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운행편수(공급좌석수) 정체로 시민들은 고속철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주말·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KTX 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열차 증차와 좌석 확대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서울~광주 KTX는 주말 KTX1(955석) 25편, KTX산천(377석) 23편, SRT(410석) 40편이 운영되며 평일에는 KTX1(955석)만 23편으로 감축 운행 중이다.

지역 정치권은 KTX 고속열차 운행 편성에서 광주와 영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하지만 KTX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시가 요구한 KTX 증차·좌석 확대는 어려움이 따른다.

서울~호남간 KTX 증차를 위해서는 서울~영남 노선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노선은 충북 오송에서 갈라진다.

수원과 서울 용산·수서간 고속열차가 경기 평택~오송 구간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인 영·호남 노선의 증감은 쉽지 않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좌석 확대 역시 쉽지 않은 구조다. 현재 서울~호남 노선에 운행 중인 KTX는 KTX1 단독운행, KTX산천은 2대를 붙여서 운행하는데 전북 익산에서 호남선과 전라선으로 분리된다.

광주시는 좌석이 많은 KTX1 2대를 붙여 운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955석인 KTX1을 붙여 운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

연일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9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 예방팀 직원들이 북구 임동 인근 하천에서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퇴치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KTX1 2대를 붙여 운행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두대가 한꺼번에 정차할 수 있는 역사가 없어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뒤따른다”고 애로점을 설명했다.

결국 KTX노선 확대를 위해서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완공이 선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해당 구간 완공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잡은 만큼 시민들의 KTX이용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관계자는 “광주시민들이 고속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구직등록 기간 놓친 이주노동자, 정부가 구제해야”

본보 2월3일 보도 후 인권위 진정 “노동자 직장선택 자유 제한” 지적

본보가 보도한 “열심히 일만 했는데...” 한 이주노동자의 눈물(2월3일) 기사와 관련, 구직등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고용 허가를 불허한 광주노동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일 광주노동청에게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해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구직등록기한의 연장 등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12월20일 구직등록기한 마감 기한을 3일 앞두고 광주 북구 모 업체와 채용 합의를 마친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카임 금링(24)씨에 대해 고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내렸다.

마감 기한 내 고용자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직전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하며, 재취업 이주노동자를 고용키로 한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관할 기관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노동자는 출국해야 한다.

이를 두고 고용자 측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허가 관련 방문 일정을 문의했고, 12월29일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노동청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29일에 방문해 구직등록을 해도 되는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

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업체는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팩스만 전송했을 뿐 피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허가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보내지 않았다. 구직등록기간 내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주근로자 인권보호 시민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카임씨는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고용 업체가 노동청에 카임씨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미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카임씨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약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노동청이 구직등록기간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행복추구권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고 지적했다.

강주비 기자

한여름에도 시원한 **달랏**

KAC 무안국제공항
PACIFIC AIRLINES
A Member of Vietnam Airlines Group

무안 ↔ 달랏 직항

999,000원~

3박 4일 월요일 07:05 ~ 10:05 3박 5일 목요일 20:10 ~ 23:10

기간 : 2023년 1차 7/05 ~ 8/24, 2차 9/28 ~ 10/26

달랏 [품계] ✈	달랏 [고품계] ✈	달랏 [나트랑/무이네]	달랏골프 [54홀]
999,000~	1,099,000~	1,049,000~	1,499,000~

월드투어센터 대표번호 070-3607-1134